

Jan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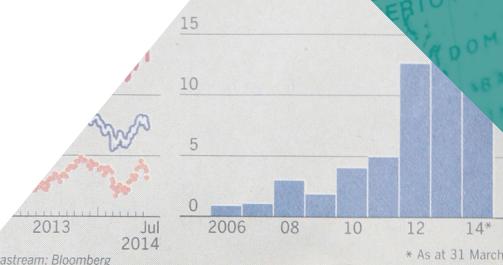
# Hana Market Monthly

▶ 연구위원 서정훈

02. 729. 0195 / [seojh@hanafn.com](mailto:seojh@hanafn.com)

▶ 연구원 박정은

02. 729. 0190 / [jungeunpark@hanafn.com](mailto:jungeunpark@hanafn.com)



Datastream: Bloomberg

\* As at 31 March

no facts might tempt a investor to hang in with by buying Rosneft's shares. and a fourth fact: these es trade below book value two times Rosneft's in and gas reserves (Exxon 17 times). About \$14bn is coming due this year, \$11 next. Rosneft may pay it continuing to sell its oil - dollars. Sanctions still allow access to US dollar clearing.

the maker of *Come Dine* say that it is an attractive move. JPMorgan estimates account for 24 percent of this year. But Liberty's best

the balance of ITV in the next six months but it could come back later. Yes, there are financial constraints - the rest of ITV would cost £7.4bn at today's price and Nomura estimates that by the end of 2014 Liberty's net debt will be a hefty 5 times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 목 차

금리	03
달러/원 환율	05
엔/원 환율	07
유로/원 환율	08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 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These two facts might tempt a  
investor to hang in with  
by buying Rosneft's shares.  
d and a fourth fact: these  
trade below book value  
times Rosneft's in  
s reserves (Exxon  
es). About \$14bn is  
due this year, \$11bn.  
Rosneft may pay it  
ing to sell its oil --  
. Sanctions still allow  
to US dollar clearing.

ance of ITV in the next six  
but it could come back later.  
ere are financial constraints  
of ITV would cost £7.4bn at  
the end of 2014 Liberty's net  
ll be a hefty 5 times earnings  
terest, tax depreciation and  
ation. But without a bigger  
liberty will be a watcher of  
content, rather than a  
ant in it

rofit schools  
g is business in the US.  
trill dollars is spent each  
on secondary education.  
ness of listed, for-profit,  
ry schools is not so hot.  
the class in this niche is  
n Colleges, which is selling  
ng nearly all its campuses  
g sanctions from the  
ent of Education.  
epartment has been cracking  
for-profits following a 2012  
sional review that found half  
nts drop out and one-fifth



## 금리

**12월 동향** 국내·외 코로나 변종 확산세 등이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미 재정부양책과 국내 3차 재난지원금 규모 확대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큰 폭 등락 시현

초반, 화이자 백신 접종 소식 등에도 미 고용지표 부진 등이 반영되며 하락 출발

- 12월 초, 국내외 코로나 확산세와 미 재정부양 이슈에 등락 출발 후, 화이자 백신 접종 소식 등 위험선호에도 미 고용지표 부진과 국내 수급 이슈 반영하며 소폭 하락

- 12월 초, 국내외 코로나 확산세에도 미국 재정부양책 합의 기대감에 따른 위험 선호 속 미국채금리 상승에 연동하며 등락 양상 시현
- 이어 화이자 백신 접종 소식 등이 위험 선호를 강화시켰으나, 미 고용지표 부진과 국내 수급 이슈 반영하며 하락 전환하는 모습

중반 국내 3차 재난 지원금 이슈와 미 재정합의 기대 등 채권시장 약세 속 금리 상승 후 수급에 의해 하락

- 중반, 국내 3차 재난지원금 이슈와 미 재정합의 기대 등이 채권시장 약세를 견인 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선물 순매수로 소폭 하락

- 국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와 내수 침체 타개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이슈 등이 채권시장 약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국고채금리 상승 흐름
- 이후, FOMC의 통화 완화적 결과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선물 대량 매수세에 재차 하락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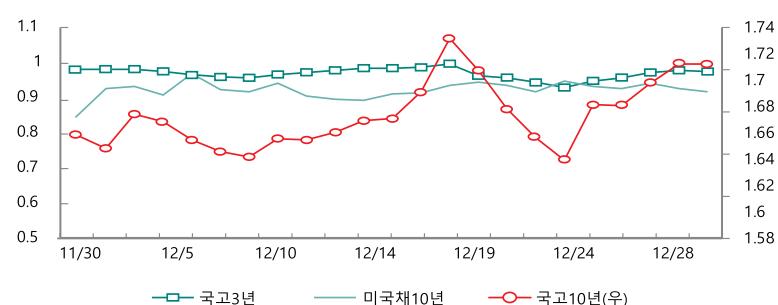
후반, 코로나 변종 이슈가 위협회피 심리 강화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내 트럼프 재정부양책과 예산안 합의 등이 상승 전환에 영향

- 후반, 코로나 변종 이슈가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하였으나, 이내 트럼프 재정부양책 서명과 국내 재난지원금 규모 확대 소식 등에 상승 추세로 마감

- 12월 후반, 영국發 변종 바이러스 이슈 부각이 국내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며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강화시켜 하락세 지속되는 양상
- 그러나 미 재정부양책과 예산안에 대한 트럼프 서명과 국내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 소식, 30년물 입찰 이슈 등으로 상승 전환하며 마감

12월 평균  
국고채( 3년): 0.97%  
국고채(10년): 1.67%  
T-Note(10년): 0.93%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1월  
전망

## 미 재정부양 합의, 백신 접종 등 위험선호 강화에도 한·미 통화완화 기조 유지 등의 상존으로 둘락 속에 소폭 하락 예상

평균	2021. 1Q <sup>F</sup>	2021.2Q <sup>F</sup>	2021.3Q <sup>F</sup>	2021. 4Q <sup>F</sup>
국고채(3y, %)	0.95	0.95	0.99	1.15

- 주요국 코로나 백신 접종과 미국 재정부양책 서명 등이 글로벌 자산시장 위험선호를 강화시킬 가운데 실물경기의 점진적 회복 기대가 맞물리는 측면 등이 장기 미국채 및 국고채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연초 이후 주요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 대통령의 재정부양책과 예산안 서명 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상기 요인은 또한 경제활동 재개를 통한 실물경기의 점진적 기대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며 장기 구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미국경제 회복이 2021년 후반이나 강한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측한 연준 스탠스 상고용과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까지 제로금리, 양적완화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은 국내외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 연준은 최근 통화정책이 미국경제를 강력히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가시적인 회복은 2021년 하반기나 되어서야 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
  - 이에 연준은 고용과 물가가 2%에 도달할 때까지 현 금리와 양적완화를 유지하겠다고 시사한 영향은 점진적 국내외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
- 한은은 국내 성장전망에 대해 3% 수준을 예상하면서도 코로나 영향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완화적 스탠스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최근 한국경제는 12월 기준 CPI가 전년대비 0.4% 상승에 그친 가운데 거리두기 상향 속 내수위축 심화에 따라 상반기중 물가상승 압력 낮은 수준 지속할 전망
  - 여기에 코로나 영향으로 한국경제의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른 한은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고려한 측면은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주요국 코로나 백신 접종의 위험선호 요인 속 미 재정부양책 타결에 따른 수급 관련 미국채금리 상승 이슈 등이 국고채 금리상승을 견인할 전망

연준 및 한은의 성장 경로 불확실성에 따른 통화 완화적 스탠스 지속 유지 등은 금리 하락 추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

1월 국고채(3년) 금리는 0.85%~1.05% 예상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경기부양책 합의</li> <li>•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 재개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준의 2021년 중 통화완화 스탠스 유지</li> <li>• 국내 거리두기 상향 등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li> </ul>



## 달러/원 환율

**12월 동향** 백신 사용 승인 소식, 영국 브렉시트의 긍정적 타결과 미 재정부양책 합의 등이 위험선호 강화하는 가운데 1,180원 재진입 시현

월 초, 코로나에 대한 백신 승인 신청 소식에도 미 재정부양책 합의 난항과 미·중 갈등 재격화 등이 달러 강세 견인

중반, 노딜 브렉시트 우려, 외국인 역송금 등 상승 이슈와 미 부양책 합의 기대, 백신 추가 승인 소식 등 하락 요인 상존 속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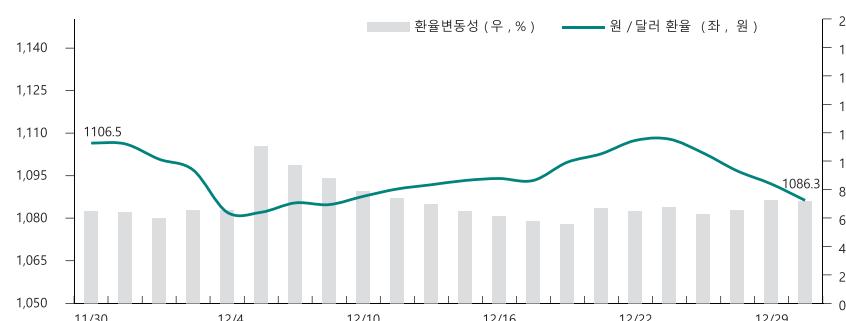
후반, 영국發 변종 코로나 우려에도 미 부양책 서명, 브렉시트의 긍정적 합의 소식 등이 위험선호 강화

- 월 초, 모더나사의 백신 긴급 승인 신청 소식 등으로 달러 약세 심화되었으나, 이후, 미·중간 갈등 재격화, 미 재정합의 난항 전환 등으로 상승 시현
  - 12월 초, 백신 승인 소식 등에 따른 미 경기 회복 기대, 옐런 재무부 장관 예정자의 긴급 부양 발언 속에 추가 미국 재정부양 합의 기대 확대 등으로 환율 하락 출발
  - 이후, 영국 노딜 브렉시트 이슈와 미·중간 무역 갈등 재격화 속에 미 의회 재정 합의 난항 등으로 큰 폭 상승 전환하며 1,090원대 진입
- 중반, 노딜 브렉시트 우려 속 위험회피 강화 양상 보이다 미 부양책 합의 기대, 백신 추가 승인 소식으로 하락 전환 후, 외국인 역송금 수요에 재상승
  - 12월 중반, 노딜 브렉시트 우려 부각에 안전자산 선호 확대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송금 수요 등으로 상승세 지속
  - 미 재정부양 합의 기대와 백신 추가 승인 소식이 달러 약세 견인했으나, 환율 하단 터치 시 결제수요와 외국인 증시 순매도 속 역송금 수요 등이 원화 약세 견인
- 12월 후반, 미국의 對 중국 강경 무역 노선 소식 등이 상승 견인한 가운데 변종 코로나 이슈도 안전자산 선호를 키웠으나, 연말 미 부양책 서명, 브렉시트 협상의 긍정적 소식 속 위험선호 강화하며 환율 1,080원대 재진입 마감
  - 후반, 미 재정부양 합의 타결에도 대중국 강경 무역 노선 영향 속 위안화 약세로 환율 상승이 이어진 가운데, 영국發 변종 바이러스 소식도 위험회피 강화에 영향
  - 그러나 연말 들어, 영국 브렉시트 긍정적 타결과 트럼프 재정부양책 서명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선호 분위기 커지며 환율은 재차 1,080원대로 진입하여 한해 마감

12월 달러/원 평균환율  
: 1,094.5원

12월 말 달러/원 환율  
: 1,086.3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자료: 연합인포맥스, 하나은행

## 1월 전망

### 코로나 백신 접종, 미 재정부양책 통과 등이 달려 약세 견인하겠으나, 중국, 이란 등과의 갈등 이슈 부각 가능성 속 국내 소비침체 우려 확대 등이 하단 제한할 전망

평균	2021. 1Q <sup>F</sup>	2021. 2Q <sup>F</sup>	2021. 3Q <sup>F</sup>	2021. 4Q <sup>F</sup>
달러/원 환율(원)	1,100	1,095	1,090	1,120

- 주요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으로 대유행 우려 진정 속 경제 정상화 기대가 이어질 수 있는 양상이 약달러를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
  - 영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서 코로나 백신접종 시작되며 경제 정상화 기대가 이어지는 측면은 위험선호 속 약달러 흐름을 다소 지속시킬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백신 효능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일부 부작용 우려 등이 상존할 수 있는 점 등으로 코로나 국면전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측면은 통화시장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예상됨
- 2021년까지 연준은 완화적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재정부양 정책 합의로 금융시장 위험선호가 크게 강화된 측면을 고려하면 약달러 기조가 쉽게 반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장기 경제침체를 우려하는 연준의 경기회복 전망 시점이 2021년 하반기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 점에 비춰, 그 시점까지는 적극적 통화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이는 미 의회 재정부양정책 합의와 함께 금융통화 부문에 위험선호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요인으로 단기 측면에서의 약달러 기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
- 국내 거리두기 강화로 실물 경기 반등이 예상보다 더딜 수 있는 가운데, 바이든 취임 전후 對중국 관련 이슈 부각 가능성 등이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 대외적 달러 약세에도 국내 거리두기 단계 강화 지속 등으로 실물경기 회복 악영향 요인들이 상대적 원화 약세 견인할 수 있는 측면은 환율 하단을 제한할 전망
  -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對중국, 이란 등과의 외교, 무역 갈등 再격화 가능성 등은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가운데 달러약세에 의한 원화 강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주요국 백신 접종 이슈 등이 코로나 대유행 우려를 잠재우며 경제 정상화 기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위험선호를 지속하게 할 것으로 보임

2021년까지 연준의 강한 통화완화 기조 속 미정부의 추가 재정부양책 등도 위험선호와 국내 외화자금 유입을 강화하며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1월 달러/원 환율 레인지: 1,075원~1,095원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든 취임 후, 대중국, 이란 등과의 무역, 외교 갈등 부각 가능성</li> <li>· 국내 거리두기 상향 지속에 따른 소비침체 속 경기회복력 약화되며 상대적 원화 약세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백신 주요국 접종에 따른 위험선호 강화</li> <li>· 미 재정부양 합의 타결</li> </ul>



## 엔/원 환율

**12월 달러/엔은 일본 내 이슈 부재 속 달러 약세 지속에 103엔 전후의 좁은 변동 시현.**  
**동향 엔/원은 위험선호의 강도에 따른 등락 시현**

엔/원 환율 전월대비  
9.2원 하락한 1,051.3원  
에 마감

- 엔/원 환율은 위험선호에 하락 출발했으나 국내 코로나19 재확산과 외국인 주식 순매도 속 상승. 이후 미국 추가부양 및 브렉시트 합의에 하락전환
  - 월 초, 위험선호 속 달러가 2년 반래 최저치를 기록한 영향으로 엔/원 환율은 1,040원까지 하락 후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위험선호 둔화되며 상승전환
  - 월 중반, 달러 약세 속 엔화가 102엔대의 강세를 보인 반면, 원화는 외국인 주식 순매도, 국내 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 강화 우려 등에 약세 시현함에 따라 엔/원 환율은 1,070원까지 상승
  - 월 후반, 미국 추가 부양책 서명과 브렉시트 합의 등에 따른 위험 선호에 엔/원 환율 하락

**1월 달러/엔 환율은 바이든 취임으로 높아진 대규모 경기 부양 기대감에 하락할 것  
으로 전망. 엔/원 환율도 위험선호 지속됨에 따라 하락 예상**

달러/엔 환율 제한된 하락  
전망

- 바이든노믹스 기대감에 따른 달러 약세 영향이 달러/엔 환율 하락 견인 예상
  - 바이든 취임 전후 경기 부양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위험선호가 강화되어 추가적 달러 약세가 이어질 전망. 1월 FOMC(1/26~27) 회의도 기준의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달러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변종 바이러스 우려 등이 달러 약세를 둔화시켜 환율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엔/원 환율은 하락 우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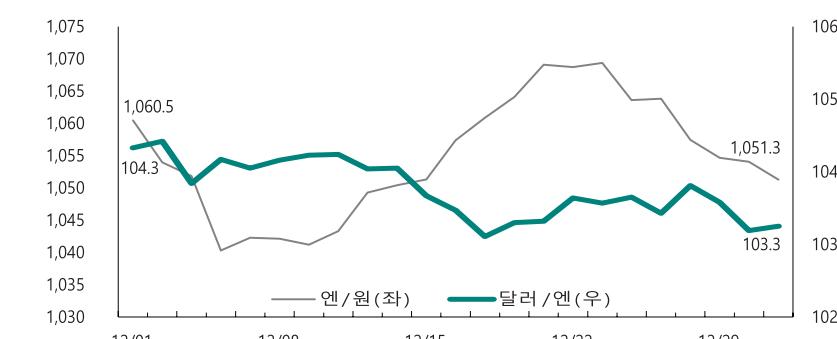
- 위험선호 지속에 따른 엔/원 환율의 제한적 하락 전망
  - 1월 효과, 바이든 취임 전후 미국 대규모 경기부양 기대,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 등에 따른 위험선호가 엔/원 환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
  - 다만, 바이든의 대중국 강경 무역 노선 시사,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이 환율 하락을 제한할 전망

12월 달러/엔 평균환율  
: 103.8엔

12월 엔/원 평균환율  
: 1,054.8원

1월 엔/원 예상 범위  
: 1,020~1,070원

엔/원 및 달러/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 유로/원 환율

## 12월 동향 유로/달러는 코로나19 백신 기대, 브렉시트 합의 등에 전반적인 상승 시현. 유로/원은 유로 강세 영향에 상승했으나 월 후반 위험선호에 따른 원화 강세에 하락전환

- 코로나19 백신 승인, 브렉시트 합의 등 다수의 유로 강세 요인으로 유로/원은 전반적 상승 후, 월 후반 위험선호에 하락해 상승폭 일부 반납
  - 월 초, 코로나19 감염 확산, 브렉시트 협상 난항 등으로 유로화 약세에 유로/원 환율 하락 시현
  - 월 중반, ECB 추가 완화정책에 따른 유로존 경기 회복 기대, 유럽 코로나19 백신 승인 등이 유로화 강세 견인
  - 월 후반, EU-영국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유로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추가 부양책 서명 등 위험선호 요인으로 유로/원 환율 하락하며 마감

유로/원 환율 전월대비  
10.1원 상승한 1,332.8원  
에 마감

## 1월 전망 유로/달러 및 유로/원 환율은 위험선호 속 유로화 강세가 예상되는 바 상승을 전망함. 다만, 유로존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그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가 환율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브렉시트 리스크 해소, 유로존 경기 회복 기대감, 바이드노믹스 등에 따른 유로/달러 환율 상승 전망
  - 노딜 브렉시트 리스크가 해소된 가운데 바이든 취임에 따른 대규모 경기 부양 기대가 더해져 유로/달러 환율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EU 공동기금 실행과 ECB의 추가 부양책 등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유로화 강세를 견인할 전망
  -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
- 유로/원 환율은 가파른 유로화 강세에 따른 소폭 상승 전망
  -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의 가파른 강세 흐름에 유로/원 환율 제한적 상승 예상. 브렉시트 리스크가 해소된 상황에서 재정 및 통화정책 시행으로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유로화 강세가 강화될 전망

유로/원 환율 상승 우위  
예상

유로/원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12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2173

12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31.6

1월 유로/원 예상 범위  
: 1,320원~1,360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1.1월)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2
					한 12월 수출/수입(+40%/-21% YoY) 12월 무역수지(\$5,930M)	
3	4	5	6	7	8	9
한 12월 Markit PMI 제조업(52.9) 일 12월 지분은행 PMI 제조업[F] 중 12월 Caixin 제조업 PMI(54.9) 유 12월 Markit 제조업PMI(55.5) 미 11월 건설지출 12월 Markit PMI 제조업	일 12월 본원통화 미 12월 ISM 제조업지수(57.5) 12월 ISM New Orders(65.1) 12월 ISM 고용(48.4), ISM 구매물가(65.4)	한 12월 외환보유고(\$436,386) 일 12월 소비자기대지수(33.7) 12월 지분은행 PMI종합/서비스[F] 중 12월 Caixin 종합서비스PMI(57.5) 유 11월 CPI(0.4% MoM, -20% YoY) 12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47.3/49.8) 미 12월 Markit 종합/서비스PMI 11월 내구재 주문[+] 제조업 수주(0%)  FOMC 회의록 공개	독 11월 공장수주(29% MoM, 18% YoY) 유 11월 소매판매(5% MoM, 43% YoY) 12월 쇼핑장/온라인서비스 기대지수 미 12월 ISM 비제조업지수(55.9) 11월 무역수지(\$-63.1b)	일 11월 가계 소비자신뢰(1.9% YoY) 독 11월 무역수지/경상수지 11월 산업생산(2% MoM, -30% YoY) 유 11월 실업률(8.4%) 미 12월 실업률, 시간당 평균임금 12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		
10	11	12	13	14	15 韓 금융통화위원회	16
중 12월 CPI/PP(-0.5%/-15% YoY)	일 11월 BOP 경상수지 중 12월 무역수지(\$76,436) 12월 수출/수입(21%/45%, YoY)	유 11월 산업생산(2% MoM, -38% YoY) 미 12월 CPI(0.2% MoM, 12% YoY)	일 11월 핵심기계수주 (17.1% MoM, 28% YoY) 12월 PP(0.0% MoM, -22% YoY) 미 12월 수출/수입물가 (0.6%/0.1%, MoM) 12월 수출/수입물가 (-1.1%/-1.0%, YoY)  Powell Takes Part in Princeton Webinar	한 BOK 기준금리(0.50%) 유 11월 무역수지 미 12월 PP(0.1% MoM, 0.8% YoY) 1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소매판매 12월 설기동률/광공업생산 기업체고		
17	18	19	20 미 대통령 취임식, BOJ 회의(~-2)	21 ECB 통화정책회의	22	23
일 11월 설비기동률(6.0% MoM) 11월 광공업생산[F] 중 12월 소매판매(5.0% YoY) 12월 광공업생산(7.0% YoY) 4Q GDP	유 1월 ZEW 서비스 예상(54.4) 11월 건설생산(0.5% MoM, -14% YoY) 11월 경상수지(26.6b)	독 12월 PP(0.2% MoM, -0.5% YoY) 유 12월 CPI[F]	한 1월 수출입 20일(전년 대비) 일 BOJ 기준금리(-0.10%) 1Q GDP 전망 12월 수출/수입(-4.2%/-11.1%, YoY), 무역수지 유 ECB 기준금리(0.00%) 미 12월 주택착공건수(12% MoM) 12월 건축허가(6.2% MoM) 1월 팔미월피아 연준 경기 전망[+]	일 12월 전국 CPI(-0.9% YoY) 미 12월 기존 주택매매(-25% MoM) 1월 Markit PMI 제조/종합/서비스		
24/31	25	26 美 FOMC(~-27)	27	28	29	30
(1/31) 중 1월 종합/제조업/서비스제조업PMI	독 1월 IFO 기업환경지수(92.1) 미 12월 사기고양국/활동지수[+] 1월 멜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일 12월 PP 서비스(-0.6% YoY) 미 1월 리모드 연방 제조업지수	미 FED 기준금리(0.0~0.25%) 일 1월 선행지수, 동행지수 중 12월 산업생산(+5.5% YoY) 독 2월 GfK 소비자 기대지수 미 12월 내구재 주문, 자본재 수주  Powell Holds Press Conference Following FOMC Meeting	일 12월 소매판매 미 1월 캔디스시티 제조업 활동 12월 선행지수(+6.6%), 산업주체매 4Q GDP/GDP기자수, 개인소비 12월 도매재고, 소매재고 유 1월 경기/산업/서비스/소비자 기대지수	일 12월 실업률 1월 도쿄 CPI 12월 건설수주, 주택착공건수, 광공업 생산 1월 BOJ 금정위 의사록 공개 미 12월 개인소득, PCE 디플레이터	

\* 주 :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 )안은 이전치



## Hana Market Monthly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하나은행 자금시장영업부 (TEL 729-0190)로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 ([www.kebhana.com](http://www.kebhana.com) → 외환포털FXKEB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